

생활세계의 근대화와 현대적인 여성성의 등장

— 『한국현대여성의 일상문화』* —

김 은 하**

1. 근대국가와 가정 그리고 여성

『한국현대여성의 일상문화』는 일상문화담론의 총색인이라 할 만한 여성잡지를 대상으로 삼아 소위 현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여성과 근대 체험의 의미를 읽어낼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특히 여성주의 연구자들에게는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는 연구의 오지에 가까우리만큼 불가사의 영역이다. 해방 이전의 여성사 연구가 상당한 질적 수준을 확보할만큼 다양하게 이루어진데 비해서 더욱 그러하다. 이로 인해 근현대 여성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거시적 시야가 아쉬운 형편이었다. 그런데도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은 자료를 충분히 발굴·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까

* 이화형·허동현·유진월·맹문재·윤선자·이정희, 국학자료원, 2005.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강사

지 발간된 잡지의 상당수가 전란을 거치면서 유실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책 역시 『신소녀』(1946.2~1946.6), 『여학원』(1946.1~1946.3), 『부인』(1946.4~1950.6), 『신여원』(1949.3), 『부인경향』(1950.1~1950.7), 『여학생』(1949.1~1950.6), 『여성계』(1952.7~1952.11), 『여성문화』(1945.12~1946.8), 『여원』, 『가정』, 『새가정』 등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일부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¹⁾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념·분단·정치·경제 등 거시적 영역에만 주목해온, 학계의 공사이분법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새로운 근대 국가란 일상생활의 합리화 과정 없이 존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해방이후의 근대 국가와 가정 그리고 여성을 상호적으로 잇는 과정을 배제한 연구는 구태의연하고 피상적인 것이 되기 쉽다. 여성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난 시절을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여성에 관한 기초자료정리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무엇보다 그러한 첫 시도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편저자들은 잡지에 수록된 다양한 글들을 “여성의 일상적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애와 결혼, 미용과 복식, 자녀교육과 여가, 가정생활과 가정위생 등의 영역”으로 분류해 『연애』(1권), 『미용』(2권), 『복식』(3권), 『여가』(4권), 『결혼』(5권), 『자녀교육』(6권), 『가정위생』(7권), 『가정생활』(8편)으로 모아냈다.

1) 이 시기 발간된 잡지로는 『여성문화』, 『여학원』, 『신소녀』, 『신여원』, 『여성계』, 『여학생』, 『신원』, 『여성공론』, 『부인경향』, 『부인』, 『현대여성』, 『가정』, 『여원』, 『여성계』 등이 있다. 『한국현대여성의 일상문화』는 이 중 도서관에 소장된 『신소녀』(1946.2~1946.6), 『여학원』(1946.1~1946.3), 『부인』(1946.4~1950.6), 『신여원』(1949.3), 『부인경향』(1950.1~1950.7), 『여학생』(1949.1~1950.6), 『여성계』(1952.7~1952.11), 『여성문화』(1945.12~1946.8), 『여원』, 『가정』, 『새가정』을 대상으로 현대여성의 생활문화를 계열화했다.

책에 담긴 자료의 종류는 명사의 논설, 좌담, 수필, 강좌, 수기, 설문, 상담코너 등 다양한데, 대체로 몇몇 좌담이나 독자의 수기를 제외한 지면이 대학교수, 교사, 언론사 기자, 문학과와 같은 지식계층에 의해 채워졌다.²⁾ 이들은 바람직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성에 관한 언설을 썼는데, 이 글들의 특징은 가정이 국가재건의 심층적 장소이며, 여성은 이러한 공공화된 사적영역에서 국가의 임무를 완수할 존재로 호명한다는 것이다. 각 잡지의 성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수의 그것은 독자를 가정주부로 가정한다. 이는 다소 의아한 일일 수 있는데, 당시 많은 여자들은 전쟁미망인이거나 이런저런 육체적 심리적 외상을 안고 돌아온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했던 생계담당자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잡지들이 교육받은 중산층 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중산층 여성에게 생계형 노동이란 그다지 명쾌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가정주부는 식민지 근대화기의 신여성만큼이나, 한 시대의 욕망과 정치와 무의식을 엿볼 수 있는 문제적 인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 우리는 해방 이후 근대적 가정이 창조되면서 여성들이 현대적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도덕적 자격으로 새로운 여성적 덕목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회적 맥락(『연애』, 『결혼』)을 엿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의 여성잡지에는 해방 이전의 그것보다 더 많은, 가정생활의 합리화와 관련된 정보성 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비

2) 이 책은 여성들이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추진된 국가 재건 사업 속에서 어떤 역할과 자질을 요구받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지만, 이에 대해 여성들은 어떻게 협력했고 저항했는가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일차적으로 주로 지식인들이, 특히 여성보다 남성 필자의 수가 많았던 당대 잡지의 특수성에서 비롯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이나 평범한 여성들의 좌담, 상담 코너, 독자 후기 등 당대 여성들의 의견과 욕망을 읽어낼 수 있는 란이 자료 추출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록 글쓴이의 직업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의사·디자이너·헤어와 피부미용 전문가·아동교육전문가의 조언을 담은 실용적인 글들이 쏟아져 나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라이프스타일, 즉 현대적 일상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청년 의학자는 여성에게 남녀의 성욕의 특징을 강의하고 이를 성생활에 적용할 것을 충고한다. 현대적 어머니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토대로 이유식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또 많은 여성들이 의상디자이너나 화장전문가의 충고에 따라 멋을 부리고 유행의 대열에 합류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생활 정보관련 글들은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성과 여성성의 의미적 연관관계를, 특히 신현모양처의 역할과 이미지(『자녀교육』, 『가정생활』, 『가정위생』), 현대적인 육체미와 교양미(『미용』, 『복식』, 『여가』)를 발명해 냈다.

2. 냉혹한 세상의 안식처인 가정과 “보드러운 여자” : 『연애』, 『결혼』

식민지의 지식인들에게 연애와 결혼을 일치시키는 것은 구시대와 결별하고 근대인이 되기 위한 절차였다. 그들은 봉건적 제도를 거스르는 불륜의 사랑을 통해 중매혼에 대한 환멸을 토로했다. 사랑과 열정은 가부장적 제도와 충돌하는 반란의 포즈였던 것이다. 이렇듯 식민지 근대의, 불륜남녀의 정사사건과 위태로운 스캔들로 점철된 연애는 해방 이후에는 일정한 담론화 과정을 거쳐 근대적 제도의 품에 안착하게 된다. 해방 이후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에 관한 언설은 눈에 띄

게 증가하는데, 연애결혼은 이상적인 사랑의 유일한 형식으로 갑남을녀에게 받아들여졌다. 실제 연애결혼의 수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지만, 한 설문은 당대인들이 비록 중매혼이라도 가문이나 재산정도보다는 성격과 호감을 더 중요한 결혼선택의 항목으로 꼽았음을 보여준다. 남녀 모두 평등한 가정과 성적 떨림을 동반한 우애 있는 부부관계를 열망하고, 소수는 운 좋게도 그것을 실현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여성들의 처지와 역할은 연애결혼과 스위트 홈이 보편적 이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크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가정은 여성의 지혜와 노동과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여성의 공간으로 정의된다. 「명사들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가정의 평화」, 「아름다운 가정의 비결」, 「부부간에 오는 불행」, 「남편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남편을 가정에 머물게 하는 秘訣十講」, 「나의 아내를 말함」, 「남편의 과음을 끊게 한 젊은 안해의 수기」 등 논설, 수필, 수기는 아내의 지혜와 정성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결정적 기초임을 강조한다. 매 호마다 명사들은, 아내는 남편과의견충돌이 있을 때 양보해야 하며,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가정이 불행하니 집에서도 화장을 하고 웃어야 하며, “교양 있고 보드러운 마음씨”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등 이상적 아내의 내적 지침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내조법을 제시했다. 물론 여성에게만 스위트 홈을 만들어 갈 임무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이상적 남성들 역시 행복한 가정을 위해 협력해야 했다. 「남편을 가정에 머물게 하는 秘訣十講」과 나란히 실린 「아내의 마음을 휘어잡는 秘訣十講」은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면 안 되는 등 부부간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경제력 있고 엄하며 자녀의 사표가 되어 아내를 휘어잡으라는 것이지, 아내에게 양보하고 맞추고 아내의 감정을 살펴 갈등을 피하라는 식의 조언은 아니었다. 아내가 갖추어야 할 가

장 중요한 덕목은 모성적 감수성이었다.

이렇듯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여성상이 등장하게 된 것은 사랑은 냉혹한 세상의 안식처라는 인식, 즉 냉혹한 공적 영역과 친밀한 사적 영역이라는 이분법이 생겨나면서부터이다.

“一生은 끊임없는 생존투쟁의연속이오 세상은그야말로 싸움마당이라 할것이니 上昇과轉落은 一平生 조이한장사이에붙어있어서사람으로하여금 쉬임없는긴장과싸움을 없을수없게한다. 그러한 인간의 세상에서 그러한 인간의 생활을그립게하고 거기에 희망과 빛을 던져주는 것이있으니 그것이 곧 사랑인 것이다”³⁾.

이 글은 ‘생존투쟁’/‘인간의 생활’, ‘긴장과 싸움’/‘희망과 빛’의 대립적 가치를 통해 연애의 의미를 확정하고,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가정이 탄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해방이후부터 제2공화국 출범이전까지의 시기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척되기 전이지만, 이미 성별에 따른 공사영역의 이분법과 그에 따른 여성성과 남성성의 내용적 자질이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가정이 정서적 영역으로 정의되고, 여성에게 감정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요구됨에 따라 사랑은 여성들의 일대과업이 되었다. “사랑은 남자에게 있어서 한낱 삽화(에피소드)에 불과하나 여자에게는 그것이 전생애다”,(p.36), “남자의 일생을 측정할 바로미터가 능력이라면 여성은 애정이라 할수있는 것이니 앞으로 설사 조선의 여성의대부분이 주방을거더차고 거리로나와 남자와 어깨를짓고 직업전선에서는일이있다할지라도 사랑이라는것을 빼버리고 여자라는것을 생각하는것은 역시 있을수없는 일일것이

3) 문철민, 『友愛 戀愛 結婚』(『부인』 1권 3호), 『연애』, p.35.

다”(p.36)는 구절은 이를 증명한다.

이런 담론들은 여성들을 사랑의 사제로, 감정의 전문가로, 가정의 주인으로 만들어 여성의 지위를 격상시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은 새가정의 순결한 안주인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국가가 여성의 성적 열정을 관리하고 제도 밖의 섹슈얼리티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조선 가정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애는 남자에게 경험을 의미하지만 여성에게는 멸망을 의미한다’는 식의 연애의 열정에 대한 경고는 무수히 많다. 특히 6·25 전쟁은 미군 문화의 유입과 전후의 허무주의적 의식과 함께 폭발적인 성 개방의 시기를 가져왔기에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국가의 고민거리였다. 이를 테면, 종로뒤편목이 성적 타락지대가 된 것을 우려하며 공창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펼쳐질 만큼⁴⁾ 연애는 플라토닉 러브가 아니라 위험한 성적 열정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성윤리를 붕괴시켜 갔다. 또한 미군정기와 함께 생겨난 “양공주”와 전후 생계가 곤란한 미망인들의 성매매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갔다. 이러한 전통적 성윤리의 붕괴현상을 극복할 뚜렷한 대안 없이 사회는 순결과 정조론을 강조하며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단속했다. “애인이 생긴 경우 좋아지려는 키스든지 무엇이든지 용감히 제공하고 애끼지 않는 소위 아푸레미(아프레 걸: apres-girl, 戰後 여성,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필자)형”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급·여대생·유한마담 등은 사회의 짐작은 성윤리를 어지럽힌 존재로 지목된다. 여성들의 성행동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 태도를 취했는가를 보여 준 대표적인 경우가 군장교로 위장해 여성들을 농락한 박인수 사건인

4) 최이순 외, 「학생시대의 연애가부론 좌담회」(『여원』 창간호, 1955년), 『연애』, pp.245~261.

데, 명사들은 “법의 이상에 비추어 가치가 있고 보호할 사회적 이익이 있는 정조만을 법은 보호한다. 정숙한 여성의 건전한 정조만을 법은 보호한다”⁵⁾며 박인수를 무죄석방한 사법부를 편들었다.

여성들의 개방적 성생활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연애는 맹목이 아니고, 정조를 지켜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점잖은 경고부터, 댄스홀에 다니는 여성의 정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사법부의 징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부장적 국가는 여성의 성에 대해 유난히 가혹한 태도를 취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더 이상 무성적(desexualized) 존재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발표된 성생활과 인간의 성심리를 제재로 한 글들은, 여성의 성욕을 과학적으로 조명하거나 부부 간의 성관계가 남성중심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⁶⁾ 이는 사회가 더 이상 여성에게 무성적 정숙함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들의 성욕은 일부일처제의 정숙한 섹슈얼리티의 규범 속에서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침실 속의 부부의 성을 다룬 글들은 새로운 스위트 홈의 상상력 속에서 논의되는 진지한 것이었다. 적어도 이 시기의 여성잡지에서 성은 상업적 말초주의와 관음증적 쾌락의 대상이 아니었다. 새로운 가부장제는 여성의 성욕을 인정하지만, 제도 바깥의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통해 여성의 욕망을 가정 영역 속에서 발현되고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규범화한다.

5) 이태영, 「現代女性은 知性を喪失했는가-現代女性의眞操觀念을檢討한다」(『여원』, 1955년 10월호), 『연애』, p.271.

6) 「합리적인 성생활」, 「현대부부섹스론」, 「결혼과 성교육」, 「불감증과 성의 공포」, 등 『결혼』 편에는 성에 관한 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부부의 성을 다룬 글들은 해방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3. 가정개량사업과 전문화된 주부의 역할 :

『자녀교육』, 『가정생활』, 『가정위생』

해방 이후의 국가재건 사업은 “오늘의 조선 여성의 할바 임무는 우선 건국을위하여 사나히름 돕는 일”⁷⁾임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성의 덕목이 내조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때 내조는 단순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가정을 짊어져 가며 때로는 남편이 기댈 어깨가 되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여성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현대 여성은 먼저 신현모로 정의된다. 해방의 감격은 국가부흥에 대한 전국민의 열광으로 이어지면서 가정은 공적 가치를 위해 개인이 헌신해야 할 장소로 호명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새로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국가의 동량이 될 자녀(아들)를 교육할 새로운 어머니가 되라는 것이었다. 해방이전부터 모성은 여성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자질이었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어머니는 상당한 수준을 갖춘 자녀교육 전문가가 되도록 요구받는다. 어머니는 단지 자녀에게 밥과 사랑을 주고 자녀의 인성을 길러주는 데 머물지 않고 소질과 지능을 개발해 줄 의무마저 갖게 된다.

어머니의 자녀교육과 관련한 글들은 크게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설, 어린이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좌, 구체적인 자녀 지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당시에는 자녀교육과 관련해 종종 중학교 입시 競爭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의 이야기가 실렸는데, 과열교육열을 비판하는 대부분의 필자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남자였다. 자녀의 성취가 곧바로 어머니로 성취로 이어졌기에 어머니는 교육에 대한

7) 安碩株, 「부부분」(『부인』 제1권 4호), 『결혼』, p.50.

비판적 거리를 확보할 수 없었다.

“ 좋지 못한 아버지를 가진 위인은 있을런지 모르나 좋지 못한 어머니를 가진 위인은 세상에 한사람도 있는듯 싶지 않다.”⁸⁾

“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다는 것은 어머니는 위대한 아들을 낳을수 있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생리학상 유전·법칙을 통해 보더라도 사람은 아버지를 닮는 편보다 어머니를 닮는 편이 더 많다고한다.”⁹⁾

이와 같은 주장은 해방이후의 언설에서 자주 발견된다. 자녀교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여성-어머니 교육의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가정개량운동은 가사를 합리화함으로써 여성들이 독서를 하는 등 교양을 쌓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기여하리라고 주장했다.

『여원』의 고정관인 〈어머니학교〉는 어머니를 아동의 가장 적합한 선생님이로 보고, 아이의 지도법,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어머니 노릇은 현대에 올수록 전문화된 수준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어린이의 발달단계와 심리적 특징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는 글(「거짓말의 유형과 심리」, 「유아기의 종교심과 소년기의 반항심」, 「반항기란 무엇인가」)은 자녀교육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제 어머니들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교육자, 심리학자, 의학자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를 과학적으로 기르기 시작하게 된다. 또한 무엇보다 자녀의 지능을 개발해 주는 것이 자녀교육의 중요

8) 黃基成, 「자녀교육과 어머니」(『부인』 제5권 3호), 『자녀교육』, p.138.

9) 상동, p.139.

한 목표로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할 수 있는 입학전의 지능 테스트」, 「어린이의 열등감과 그지도」, 「新人兒童의 知能差異」 등은 교육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준다.

이렇듯 여성의 현모로서의 자질이 강조되는 다른 한편으로 주부가 현대 중산층 가정의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역시 새롭게 발명되기 시작한다. 현대의 이상적인 아내는 남편을 지혜롭게 내조하는 여성인데, 이때 내조란 과거와 같이 남편의 말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 먼저 현대적 부덕을 갖춘 여성이라면 전문적인 살림꾼으로서 합리적인 경제생활로 남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했다. 해방 이후부터 과학화, 합리화, 간소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가정 영역을 둘러싸고 일대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가정생활의 합리화는 성평등 운동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실상 살림의 합리화를 통해 국고의 낭비를 막자는 국가부흥 프로젝트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 여성들은 효율적으로 살림을 함으로써 남편의 경제적 짐을 나누어야 함이 강조된다.

“우리주부는 남편의 직업을 잘 이해하고 협조하며 동고동락은 물론 항상 힘이되고 위로가 되어야하겠다. 예를 들면 큰 기업가가 실패하여 파산하는 때도있겠다. 주부는 이때에 생활의 전환을 각오하며 실패한 남편에게 실망을주지 않아야할것이다. 또는 소득은 적으나 남편이 그 직업에 만족하며 일의 흥미를 갖일때에는 이것을 격려하며 적은 소득에 만족하며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말어야할것이다.”¹⁰⁾

가정개량이 여성훈육의 일환이었음은 가정개량의 내용으로 계획있

10) 朴楠吉, 「즐거운 집 평화의 집-새 가정의 設計」(『새가정』 제2권 8호), 『가정생활』, p.203.

게 돈을 쓰기 위해 식모를 두지 말고, 가계부를 쓰고 사치를 삼가고, 늘상 가장을 웃는 낮으로 대하라 등이 포함된 데서도 드러난다. 또한 막대한 외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살림살이의 방법이 소개되면서, 사치하는 한국여성들은 전후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추앙받은 독일여성과 대조되기도 했다. 「냉장고 사용법」, 「채소 살균법」, 「파라솔 세탁법」, 「찌뜨른흰양복빠는 법」, 「옷에 잉크묻었을때」, 「가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전기 상식」 등은 살림이 전문화해갔을 뿐 아니라 살림을 재테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현대의 이상적인 주부의 또 다른 자격은 수다한 후진국형 질병과 성병으로부터 가정을 지켜 국가를 근대화하는 것이었다. 「주부가 알아둘 가정의학상식」, 「폐염환자의대하여 부모의 주의사항」, 「洋醫가 본 간괴란엇던병인가」, 「계절과 눈병」, 「유아건강독본」, 「놀라운 幼兒 死亡率 原因은 주로 消化不良」 등은 주부가 가족 건강의 관리자로 호명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가정위생』에 실린 상당수의 글들은 당시 성병이 심각한 사회문제였음을 보여준다. “성병은 개인의 인위의 병이고 각자의 성격으로 인한것이나 『성격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병』이며 국가적으로 보면 『망국병』이다. 성병은 일명 화류병 이라고도 하니 『사치병』이라고도 할 수도있고 직업적 매춘부에게는 『빈곤병』이며 가정부인에게는 『남편병』이며 자손에게는 『절손병』이다”¹¹⁾라는 말이 나올만큼 성병은 국가의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매독과 임질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방안은 남성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성매매 방지에 나서는 게 아니었다. 국가는 주부로 하여금 성병에 대처하

11) 尹裕善, 「性病과 國民保健」(『부인』 제5권 1호), 『가정위생』, p.201.

도록 유도했다. 『여자계』 편집자의 말에 따르면 부인 위생에 관한 코너에는 독자의 성원이 쏟아졌다고 한다. 부인 위생은 물론이고, 인체와 병의 관계, 가족건강관리법은 남편이 아닌 현대의 주부가 알아야 할 새로운 지식이었다. 주부는 가족 건강의 사제라는 새로운 역할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았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성의 천직은 살림”이라는 명제가 탄생한다. 이제 살림은 누군가가 도와준다 해도 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대충해서는 잘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 되었다. 한 주부의 “의복을 입고 찬거리를 사러 갈 때의 왕비가 된 느낌”이라는 고백은 프로 주부의 자부심을 엿보게 하는데, 이는 살림의 전문화가 여성들을 사적 영역에 밀어넣음으로써 성별에 따른 공사영역 이분법이 고착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4. 새로운 훈육장치로서의 아름다움과 멋내기 :

『미용』, 『복식』

해방과 함께 일제의 다양한 규제들이 풀리면서 사회는 활기를 띠게 된다. 여성들의 멋내기 역시 해방의 자유가 가져온 변화였는데, 일제 말기 금지되었던 퍼머(permanent wave) 헤어스타일이 등장하고, 일본식 몸빼를 벗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은 여성들이 늘어갔다. 거리는 앞이 뭉툭하거나 발등을 끈으로 묶는 옥스퍼드스타일의 구두를 신고 알록달록한 색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들로 화사했다. 특히 화장은 점차로 여성들의 일상적인 의례가 되어, 육이오 전쟁 이후에는 “화

장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대하게 될 때, 어딘가 한 구석이 허수루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심지어 화장은 “여성으로서의 가장 고상한 창작생활”(83)로 간주되기까지 한다. 이렇듯 복식과 미용 상의 일대변화와 함께 육체는 현대적인 여성미가 표현되는 장소로 재발견되었다. 이제 현대여성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일종의 상품처럼 가공하고 치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드문 경우 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여성잡지들은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는 법은 물론이고 쌍꺼풀이나 유방 정형(성형을 의미)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후 여성 잡지의 상업화를 예고하듯 미용 기사는 미용과 관련한 상품광고와 함께 실리기도 했다.

이렇듯 여성들이 한껏 멋을 내는 시기가 온 까닭은 무엇인가? 먼저,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던 여성들의 상당수는 전후 생계담당자가 되었는데, 「개성을 살리는 직업 여성의 화장」(『여성계』, 1954.1), 「취업여성을 위한 하루의 미용」(『여성계』, 1956.9) 등 취업여성독자를 위한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들 수 있는데, 1950년 중반 『로마의 휴일』이 상영되면서 ‘오-도리·헵반’의 헤어와 의상은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 전후 경제부흥과 함께 구두뿐 아니라 핸드백, 목걸이, 브로치, 귀고리, 안경, 장갑, 파라솔 등 장신구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유행의 주기는 점차 짧아지게 된다. 상당수의 잡지들이 현대적인 교양미를 내세우면서 여성들에게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만큼 당시 영화배우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은 모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전에 은밀히 사회적 지탄을 받던 여성들의 몸치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까닭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대중문화의 영향력때문만이 아니다. 화장은 직업여성만이 아니라 가정주부에게도 권

장되어 「밤화장법」, 「침실에서 의 화장법」, 「부엌에서의 화장법」 등의 기사가 실려곤 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가정을 밝게 하는 예쁜 엄마가 되기 위해서 혹은 여성의 영원한 적인 직업여성들로부터 남편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화장을 하도록 권장받았다.

여성들의 멋내기는 “우리 사람은 야만과미개의시대를버서나 문명의 시대로드러온이삼천년전의 머-ㄴ 옛날부터 미를 추구하고 항상 동경하여왔다”¹²⁾고 하여 현대화의 징표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는 멋내기는 일종의 개성 표출의 방식이며, 먹고 살만해 진 시대의 문화적 치장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화장한 여성들은 가난과 비참을 은폐하고, 모든 자기 표현이 금지되었던 식민의 기억을 지워줄 해방된 근대국가의 표상이었던 것이다. 화장을 안 한 여성의 외출은 무례한 것으로 지탄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화장은 본능이다- 여성은 최대한도까지 아름다워야” 한다는 식으로 아름다움을 여성의 본질화된 욕망으로 가정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아내의 미는 남편에게 빛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만큼 화장은 이웃과 가정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듯 여성미는 육체와 긴밀한 함수관계를 맺지만 남성미는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남성의 미를 묻는 설문문에 많은 여성들은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연인 앞의 남성이 아름답다, “규율있게 모여있는 남성의 떼는 여성을 황홀케 한다”, “핸들을 잡은 전차나 자동차 운전수에게서 미를 발견한다”, “자기의 지론을 주장할 때 남성이 아름답다고 답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육체와 관련되거나 매우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정의되었다. 「눈썹 수정 방법」, 「사회초년생의 화장법」, 「홀몬크림은 효과

12) 李俊淑, 「知性美와 美粧法」(『부인』 제1권 3호), 『미용』, p.32.

적인가], 「손과 다리의 화장」, 「입술연지는 어떻게 그리나」 등은 여성의 육체관리가 얼마나 세분화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렇듯 여성은 사회의 불거리나 아름다워지려는 본능을 가진 존재로 정의되었지만, 멋내기가 정도를 넘어설 때는 가혹한 비판과 규제를 받았다. 화장은 여성들의 자기표현 욕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여성들의 미에 대한 남성의 애착과 동경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화장이 잘 되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남성 사회의 기준을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오고가는 녀인들이三分의二쯤은 창부나 매춘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p.34)는 말이 나올 만큼 점차로 진해진 여성의 화장은 교양없음이나 심지어 창녀의 징후로 간주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의 멋내기는 국가를 위태롭게 할만한 사치로 간주되기도 했다. 신국가건설이 시대적 의무가 되면서 의복개량운동이 전개되어 활동적인 서양옷을 입자는 식의 주장이 나오게 된다. 이와 함께 “몸뚱으로부터 해방되자 들어온 베르벳드, 나이론 양단의 유행은 여성을 타락시키고 말았다”¹³⁾며 여론은 여성들의 의복사치가 국가의 경제를 좀먹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4·19 혁명 이전의 여론은 이승만 정권의 폭정의 그늘에서 여성들이 사치와 외국산 숭배로 스스로를 타락시키고 국가를 좀먹어 왔다고 비판하며 여성들의 인간개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는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가정과 사회를 빛내는 여성의 육체관리를 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가정과 사회의 규범을 벗어난 여성의 자기표현을 처벌하였다. 현대여성이 된다는 것은 외출타기처럼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것이었다. 모든 새로운 것들은 창조되자마자 제한되

13) 高元逸, 「치마저고리의 流行五十年變」(『여원』 제6권 8호), 『복식』, p.325.

었고, 허용과 금지의 체계들은 부조리하면서도 상당한 일관성을 갖추어갔다.

5. 가정성 예찬과 여성의 지위 문제

근대성 연구에서 여성의 일상 경험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현대 여성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구축된 일종의 문화적 허구물이지만, 동시에 여성 혹은 여성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성립된 근대국가란 상상할 수조차 없다. 해방 이후 국가는 연애결혼과 남녀의 평등성에 기초한 새로운 가정의 상을 제시하고, 이를 예찬함으로써 가정을 개인과 국가를 잇는 교두보로 설정했다. 근대적 사랑의 열정은 사회를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보다 문명화하고 민주화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 국가는 노골적인 힘의 과시가 아닌 이상적 가정의 상을 통해 개인의 정열로부터 이익을 얻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건설의 기둥으로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가정주부가 국가부흥을 좌우할 국민의 일원으로 간주됨으로써 여성의 지위는 상승했다. 주부가 된다는 것은 밥순이, 부엌순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벗어나 국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사일은 무가치한 노동이 아니며, 비록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문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었다. “살림은 여성의 천직”이라는 말에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며, 그러한 중책이 여성의 일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듯 가정성¹⁴⁾이 예찬되고 가정주부의 능력이 중시되면서 여성들의 지위 역시 높아졌다. 가정성 예찬의 사회적 분위

기는 분명 가족 안의 가부장제를 완화시켰다. 여성들은 주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부부가 협력하는 가정 분위기가 강조됨에 따라 아내를 존중하라는 부부의 윤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많은 여성들이 가정성 예찬을 받아들임에 따라 성별분업은 더 한층 강화되었다. 가정적 여성성의 이상과 함께 여성은 감정적 존재, 이타적 모성으로 규정되어 갔다. 여성들의 인권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새로운 성역할 체계와 그것이 배태한 성의 위계는 성평등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중산층 가정주부들은 스스로의 계층적인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가족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침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와 함께 오랜 시절부터 여성들이 일상 문화 속에서 누려오던 권위는 점차로 몰락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스스로가 살림을 통해 터득한 지혜를 자신의 딸들에게 전수할 수 없었으며, 남성 전문가들이, 나이트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누려온 권위를 대신했다. 현대화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미명 하에 가정은 자본의 전면적인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가정 영역의 중요성이 여성들의 지위에 미친 영향과 그것에 대한 가치평가는 다양한 맥락의 접근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14) 가정성 예찬이란 말은 크리스토퍼 래쉬에게서 가지고 온 것이다. 래쉬는 19세기 여성의 일상문화를 연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가정성 예찬의 문화와 함께 여성들의 가사와 육아 노동이 늘었지만, 그것이 여성의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가정성 예찬의 분위기가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등이 시기의 페미니즘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Christopher Lasch 지음·오정화 옮김, 『여성과 일상생활』, 문학과지성사, 2004, p.129).